

<성경칼럼 요한복음 열세번째 : 나사로 사건이 만든 대조>

트레일 준비에 마음이 설레지만 떠나기전에 칼럼 하나를 더 써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길어졌다. 끝까지 읽어 주기를 바란다.

요한복음 12장은 11장의 연속이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 나온 사건은 당시에 세상을 뒤집는 엄청난 사건으로 요한은 기록한다. (12:9,11, 19,20) 나사로 사건은 그 이후에 세상을 대조되는 두가지 다른 길을 가도록 만들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요한복음 12:17 절과 37절에 나타난 차이가 있다. 42절에도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무엇이 대조 되는 것일까? 이 다름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야 할 이유는 없다. 요한복음 12장을 읽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명시 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다. 특별히 요한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기록을 했는데 요한만이 나사로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중요하면 모두가 다 기록을 할수도 있고 (오병이어 사건처럼) 또 유독 나사로 사건처럼 요한 하나만 기록 할 수도 있다. 자 한번 살펴 볼까?

첫째로, 요한복음 12:17절의 사람들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 걸어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증언 했다고 기록했다. (12:17) 이 사람들은 몇몇 소수가 아니라 ‘무리’

라고 규정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목격적 증언은 또 다른 무리들을 예수님에게 찾아 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 (12:18) 이 무리들에 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겠다.

둘째로, 37절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아 나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본 사람들이지만 결국 믿지 않은 사람들이다. 나는 이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나саро가 무덤에서 살아 나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들은 표적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행하는 일이 되고만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어떤 표적을 행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지 못한다는 뜻이다. 기적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충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12:38-40) 여기서 믿음이 표적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밝힌다.

그들이 못 믿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가지고 장난하시는 것도 아닐텐데 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하셨을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이 이해 할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알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 일급 비밀이다. 하나님과 구원 받는 나만이 아는 사실이다. (물론 외부인도 드물게 알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도 다시 그 눈을 뜨게해서 보게하시고 그 완고한 마음을 녹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실 수있는 분도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셨다고 영원토록 눈이 멀게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공지에서 나오는 것일까? 믿음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이 강한 사람일 수록 그렇게 받아 들이고 판단 한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 볼수 있다.

그렇다면 12:37절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인간의 '자아'다. 인간이 인간 자아에대한 금지와 자부심이 너무 강하면 자신의 '자아' 외에 다른 것을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결점을 가진다. 이 '자아의 성질' 은 너무 강해서 결국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 정말 무서운 것이 사람의 자아다. 이 자아가 믿음을 망치고 믿음을 없애고 믿음을 버리게 한다.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바로 '자아'다. 자아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것도 같은 결과다. 예를들면 백인들이 지나치게 백인에대한 자아와 금지가 강하면 결국 다른 민족들을

받아 들일 수 없는 현상과도 같다. 이 인간의 자아는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아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셔도 인정 못한다. 그것이 인간의 못된 ‘자아’ 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닫고 완고하게 하셨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라고 본다. 인간의 못된 자아가 이사야의 말씀처럼 자신을 그렇게 만들고 있던 뜻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자아’ 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죄’ 로인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아’ 는 사람의 눈을 멀게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아주 졸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사랑이 많은신 분이시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눈을 멀게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해서 구원하시고 선택해서 멸망시킨다는 신학적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신학이 만들어 낸 이중적 하나님을 존경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은 결국 내 자아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도 내 눈이 닫히고 내 마음이 다시 완고해 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내 타락한 ‘자아’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자아를 결코 이기 실수 없다는 뜻인가? 아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 할 바로 그 때다. 오직 이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이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회개’ 는 지독히 강한 ‘자아’를 가진 인간을 위해 피할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믿음을 갖도록 길을 여셨어도 ‘회개’ 는 내 몫이지 하나님의 몫은 아닌 거다. 그러데 종종 그 ‘회개’ 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지 못하는 이유다. 37절의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은 그 많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 할지라도 혹은 믿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가 그 믿기를 거절 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성령의 활동과도 관계가 깊다) 다시 강조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수없이 보고도 못 믿는 이유는 그 표적을 못 믿어서도 아니고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온 것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자아’ 가 만들어 낸 스스로의 우상이다. 그래서 그 우상이 된 ‘자아’ 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믿게 한 것이 아니라 못믿게 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울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도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자아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이라는 깊은 자아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나치게 유대인이라는 자아에 빠져 자신들만이 구원이 허락 된 것으로 생각되는 이치와 똑같다. 그리스도인의 지나친 자아의식과 긍지심은 오히려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퇴보 시키고

병들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와 긍지를 죽이고 자아와 긍지 없는 ‘종’ 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정말 사는 것이다. 아멘